

## 빌레레(Villeret) 컬렉션이 “데이-데이트(Day-Date)” 모델과 함께 더욱 풍성해집니다.

블랑팡(Blancpain)의 가장 상징적인 라인인 빌레레 컬렉션 최초로 “데이-데이트”라는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모델을 선보입니다.

블랑팡은 자사의 시계에 들어가는 모든 무브먼트를 직접 만드는 워치메이커인 만큼, 만들고자 하는 시계가 무엇이든 그 안에 탑재되는 무브먼트에 있어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기술력은 브랜드로 하여금 “데이-데이트”라는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을 발표할 수 있게끔 하였다. 실용적이면서 우아한 아름다움까지 지닌 이 새로운 타임피스 는 다이얼을 훑음 보는 것만으로도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 하였다. 빌레레 새로운 모델의 케이스는 40mm 사이즈의 스틸 소재로 되어 있다. 매트하게 처리한 화이트 다이얼은 안쪽을 잘라낸 나뭇잎 모양의 핸드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드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으며, 3시 방향에는 요일창과 날짜장이 자리하고 있다. 요일은 한번에 전환되고, 날짜는 서서히 전환된다.

시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무브먼트는 오토매틱 칼리버 1160DD로, 이는 275개의 부품과 34개의 주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드 레귤레이션 스크류와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사용된 글루시듀어(glucydur) 밸런스가 사용되었다. 실리콘 소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시계 산업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 충격에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자성의 영향에서도 자유롭다. 이 모든 장점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소재로 만든 밸런스 스프링은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성질을 지녀 무브먼트의 오차를 현격히 줄이고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4Hz의 진동수를 자랑하는 이 무브먼트는 연속된 두 개의 메인 스프링 배럴에 연결되어 동력을 얻으며, 72시간에 이르는 파워리저브가 가능하다. 300m 방수 가능하고,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련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와인딩 로터는 허니콤 기요셰(honeycomb guilloche) 패턴으로 장식된 옐로우 골드로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타임피스는 핸드 스티치로 장식된 블랙 엘리게이터 스트랩과 연결되어 있다.